

일본의 언어 연구 사전

송영빈

이화여자대학교 일본언어문화연계전공 교수

1. 들어가며

일본 사전의 시작은 682년에 편찬된 《니이나(新字)》라고 한다. 다만 현재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으로만 등장한다.¹ 이후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전이 약 1300년 이상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현대적 의미의 일본어 연구를 위한 첫 언어 연구 사전이 나온 것은 1955년이다.² 당시 ‘국어학회’라는 이름으로 《국어학사전(國語學辭典)》이 나온 것이 그것이다.³ 이후 이를 계승 발전시킨 《국어학대사전(國語學大辭典)》이 1980년 9월 나왔다. 2004년 ‘국어학회’가 ‘일본어학회’로 이름이 바뀌고 2018년 10월에 일본어학회라는 이름으로 《일본어학대사전》이 새로이 출판되었다. 1944년 설립된 ‘국어학회’가 ‘일본어학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국어’라는 명칭이 갖는 제국주의 언어로서의 성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일본어도 세계의 여러

1 일본어학회 편(日本語学会編)(2018), 《일본어학대사전(日本語學大辭典)》, 동경당출판(東京堂出版), 466쪽.

2 이 글에서는 ‘언어 연구 사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술어사전(術語辭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3 1944년 일본에서는 ‘국어학회’라는 명칭으로 일본어 연구를 위한 학회가 설립된다. 그 후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이 이 사전이다.

언어 중 하나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⁴

이 세 사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같은 학회에서 발간한 사전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각 사전마다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학회 명칭의 변화가 실질적인 연구 내용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1955년 당시의 일본어 연구와 현재의 연구 환경이 언어학을 포함한 인접 학문의 발달로 크게 변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언어학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를 갖는 《언어학대사전》이 198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총 7권으로 일본에서 발간된다.⁵ 서구 언어학에 비해 언어학 이론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일본 상황을 생각할 때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 흥미롭기만 하다.

한국에서도 1945년 이후 언어 연구를 위한 사전이 편찬된다. 1971년 허웅, 박지홍 공편 《국어국문학사전》을 시작으로 1973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國語國文學事典)》이 나왔고, 1982년에는 이정민, 배영남 공저 《언어학사전》이 나왔다.⁶ 1995년에는 국어학만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 사전인 《국어학사전》이 한글학회에서 나왔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 사전을 보면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본어학회 사전이 약 70년 동안 걸친 학계의 연구 변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전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이 글에서는 1955년 《국어학사전》에서 2018년 《일본어학대

4 일본어학회 누리집 참조. (<https://www.jpling.gr.jp/kaiin/osirase/osirase2000-2003.html#forum>)

5 가메이 타카시·고노 로쿠로·치노 에이치 외 편(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他編)(1988~2001), 《언어학대사전(言語学大辞典, 第1巻-第7巻)》, 삼성당(三省堂). 이 사전은 현재 전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https://joao-roiz.jp/SLE/> 참조.

6 이 사전은 전통 언어학은 물론 당시 언어학에서 가장 주목받던 변형 생성 문법도 포괄한 사전이다. 일본에서는 변형 생성 문법의 이론을 담은 사전이 1971년 야스미 미노루(安井稔) 편 《신언어학사전》이며 전통적인 언어학 이론까지 포괄한 사전이 나온 것은 1988년 다나카 하루미(田中春美) 편 《현대언어학사전》이다.

사전》까지 일본어학회에서 나온 세 권의 사전에 나타난 일본어 학자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면서 1945년 이후 일본어 연구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언어 연구 사전 편찬

2.1. 《국어학사전》

1955년 6월 당시 국어학회라는 이름으로 《국어학사전》이 발간된다. 당시 편집 위원장 겸 국어학회 대표 이사였던 도쿄대학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 교수는 이 사전의 ‘간행글’에서 국어학회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⁷ 이하 이 글에서 인용문은 모두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국어학은, 그 오랜 전통과, 그간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학회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연구자가 서로 돕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에 전국적 학회가 하루라도 빨리 탄생하게 되기를 절실히 바란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박사의 열의는 널리 전국 연구자의 뜻을 움직여 전쟁이 한참인 어려운 시절 설립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졌다. 하시모토 박사가 회장으로 추대받아 학회가 정식으로 성립, 발족된 것은 1944년 3월 30일이었다.

⁷ 국어학회 편(1955), 《국어학사전》, 동경당(東京堂), 1~2쪽. 도키에다 모토키는 1900년에 태어났다. 소쉬르 언어학에 대해 비판하며 언어를 인간의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는 ‘언어 과정설’을 주장했다. 언어 과정설에 대해서는 1941년 발간한 그의 책 《국어학원론 언어과정설의 성립 및 전개(國語學原論 言語過程說の成立と其の展開)》,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을 참조하기 바란다. 핵심 내용은 소쉬르의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표현되는 언어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에 반대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표현 활동 속에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서구 언어학에 치중하던 연구 풍토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어를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인 언어학 이론을 제창한 것이다. 그는 1927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1933년 교수를 거쳐 1943년 당시 동경제국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활동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국어학’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기술이다. 각주 7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서구 언어학과는 달리 독자적인 ‘국어학’ 연구의 전통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 인용하는 이 사전의 기본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어학사전》은 1954년 국어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학회의 발걸음을 기념하고 앞으로 국어학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집 간행이 기획되었으며 이 사전의 목표와 편찬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8,9}

이 사전의 목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는 국어 연구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나아가 최신, 최고의 학문적 성과와 이에 대한 다른 생각과 학설까지도 공정한 입장에서 기술, 소개하는 데 있다.

즉 서양의 언어학보다는 그동안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국어학’ 연구가 이 사전을 통해 망라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사전 편집 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사전의 항목 기술 범위에 대한 언급이다.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언어생활과 국어 교육, 국어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구하여 언어학 일반, 기타 인접 과학 항목도 수록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널리 일반인에게 이 분야 학문의 문을 개방하는 것을 꾀했다.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소항목을 일본어 가나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이것

⁸ 위의 책, 2~3쪽.

⁹ 그는 경성제국대학 재직 시절 한국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조선에서의 국어 정책 및 국어 교육의 장래(朝鮮における國語政策及び國語教育の將來)」(1942), 「조선에서의 국어 실천 및 연구의 제상(朝鮮に於ける國語 - 實踐及び研究の諸相)」(1943)에 당시 그의 일이 소개되어 있다. 도키 에다의 식민지 시대 활동과 학문에 대해서는 소상한 연구가 있다.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1998), 《식민지 시대 ‘국어학’(植民地のなかの「國語学」)》, 삼원사(三元社), 103~166쪽’을 참조.

이 갖는 나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소항목에 해당하는 상위 분야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 그 분야는 음성·기호, 언어·언어명, 음성(음운)·문자·문법·문체·어휘, 방언·위상어(位相語), 언어생활(읽고 쓰는 것 등을 포함)·언어 문제·국어 문제 등이다. 예를 들면 소항목 ‘악센트’의 경우 해당 분야를 [음성]이라고 표제어 뒤에 명시하는 식으로 상·하위 관계를 이용하여 가나 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도키에다의 글에서 ‘언어생활’, ‘국어 교육’, ‘국어 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1945년 일본 패전 직후 일본이 민주 국가 설립을 위해 일본어 개혁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생각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45년 이전 일본어 표기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자의 운용 상황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표기 개혁이 필요했고 한자 제한, 혹은 폐지까지도 고려할 심각한 상황이었다. 즉 언어 근대화를 위한 한자 개혁이 필요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어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948년 국립국어연구소가 설립된다. 일본인의 읽고 쓰기 생활 속에서 어떤 한자와 어휘가 쓰이고 있는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연구가 이때 시작되는데 이를 ‘일본인의 언어생활’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연구 결과를 갖고 ‘국어 교육’과 ‘국어 문제(주로 한자 제한)’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이 당시 주요 연구 주제였다. 도키에다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¹⁰ 이 사전의 기술 항목은 총 2,270개이다.

10 ‘언어생활’ 조사에 대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그동안 수행한 조사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https://db3.ninjal.ac.jp/publication_db/). 일본어의 개혁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노무라 마사야키 지음, 송영빈 옮김(2004),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 북스, 90~100쪽’ 참조.

2.2. 《국어학대사전》

《국어학사전》이 나온 지 25년 만인 1980년 9월 《국어학대사전》이 발간된다. 이는 학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기획된 것이다. 이 사전은 《국어학사전》이 갖고 있던 소항목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중항목 중심주의로의 변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소항목 중심주의는 도키에다의 앞선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어 연구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전은 소항목 단순 나열에서 벗어나 기술 항목을 상하 관계에 의해 체계화(중항목)하고 소항목 중에 서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동의어/대의어(對義語)’, ‘통역/동시통역’ 등을 하나로 합쳐 이들을 부록에 제시한 색인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소항목은 《국어학사전》 2,270개에서 1,217개로 줄게 되었다. 특히 이전 사전에서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던 국어 교육과 문학 관련 항목을 대폭 삭제한 것도 항목 수가 줄어든 이유이다.

이 사전의 또 다른 특징은 서구 언어학의 이론을 적극 수록한 점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변형 생성 문법에 의해 언어학 연구도 정적인 구조주의에서 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 사전의 ‘후기’를 담당할 쓰키시마 히로시(築島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¹

근년 발전하고 있는 계량 국어학, 구조 언어학과 생성 문법과 같은 미국 언어학, 언어 지리학과 같은 관계 항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 서구 언어학 이론이 《국어학사전》에 비해 대폭 수용된 것은 사실이며 문학과 국어 교육 항목 등이 대폭 삭제되면서 본격적인 언어 연구를 위한 사전으로서의 전문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전도 역시

¹¹ 국어학회 편(1980), 《국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東京堂出版), 1183쪽.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국어학사전》 편집 위원과 집필자의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것이 《국어학대사전》 기획 단계인 1974년 시점에서는 40대 후반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쓰키시마의 사전 후기에서처럼 연령이 다소 높아진 것 외에 사전 편집을 담당할 학회 구성원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그들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언어학 이론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담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¹²

이 사전이 발간된 1980년의 상황은 1945년 이후 연구자의 급증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사전에 담아야 했던 시기였다.¹³ 그러나 편찬 시기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및 외국어와의 비교·대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전은 앞의 사전과 마찬가지로 ‘국어학’을 담는 그릇이라는 성격이 여전히 강했다. 따라서 이 사전은 1955년 《국어학사전》을 보다 확대 정교화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이 갖는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발간된 이 사전은 대학에서의 일본어 관련 학과 설치와 연구자 급증이라는 상황 속에서 1999년 7월 당시 제 10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만큼 일본어 연구자에게는 필수 도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전이 활용되던 시기는 ‘국어학’과 ‘일본어학’이 공존하면서도 ‘일본어학’의 성격과 연구 영역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연구자들은 역사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국어학’에서 벗어나 ‘일본어학’ 연구 사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¹² 위의 책, 1184쪽.

¹³ 이 시기에 ‘사토 키요지 편(佐藤喜代治編)(1977), 《국어학연구사전(国語学研究事典)》, 명치서원(明治書院)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1945년 이후 대량으로 발굴된 일본어의 역사적 자료가 충실히 수록된다. 한편 기술 항목은 대항목주의를 채택하여 가독성이 높아졌다.

2.3. 《일본어학대사전》

1988년 긴다이치 하루히코(金田一春彦) 외 편 《일본어백과대사전(日本語百科大事典)》이 나온다.¹⁴ 이 사전은 일본어를 연구하기 위한 사전이지만 ‘국어학’이 아니라 ‘일본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의 일본어 연구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전통적인 역사 언어학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언어학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일본어의 특성에 기반한 연구를 담은 사전이다. 사전의 기술 항목을 크게 총 22장으로 나누고 그 아래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이라는 식으로 세분화하여 학문적 체계성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배열했다. 이 사전의 발간은 ‘국어학’에서 ‘일본어학’으로의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00년 즈음부터 일본 국어학회 내에서는 현대어를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와 인접 학문, 특히 컴퓨터로 일본어를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일본어 연구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¹⁵ 2004년 ‘국어학회’가 ‘일본어학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새로운 사전 만들기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대두되면서 2006년부터는 학회 이사회에서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2014년) 사업으로 새로운 사전 편찬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2007년 당시 일본어학회 회장이던 노무라 마사야키(野村雅昭) 교수 주도로 2008년도부터 사전 편찬이 시작된다. 사전의 항목 수는 당초 852개에서 최종적으로는 797개가¹⁶ 되었지만 이전 사전들보다 기술 항목을 대폭 줄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까지 제시하는 기존의 찾는 사전에서 읽는 사전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된

14 긴다이치 하루히코·하야시 오키·시바타 타케시 편(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編)(1988), 《일본어백과사전》, 대수관서점(大修館書店).

15 쓰키모토 마사유키(月本雅幸)(2018), 「간행의 경위(刊行の経緯)」, 《일본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16 ‘다나카 마키로(田中牧郎)(2018), 「신간 close up 『일본어대사전(新刊クローズアップ)』 『日本語学大辞典』, 《일본어학(日本語学)》, 통권 487호(제37권13호)[通巻487号(第37巻13号)], 명치서원(明治書院)을 보면 본문 분량은 이전 사전에 비해 100쪽이 늘었는데 항목은 3분의 2로 줄었다고 한다.

것은 정보화의 영향이다. 기존 사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문헌이나 문헌 목록은 인터넷상의 각종 누리집을 참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전에는 일절 수록하지 않기로 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의 정보화가 가져다준 혜택이다. 실제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가면 이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문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을 비롯 다양한 누리집을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은 거의 모두 검색이 되며 심지어 영어 번역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자료가 많아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근대 자료들도 기록 보관(아카이브)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¹⁷ 자료는 삭제하고 각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연구 전망은 물론 이에 대해 개별 항목 담당 연구자와 편집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답았다는 것은 놀라운 결실이다.

1980년 이후 일본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물론 인적 교류 확대에 의해 《국어학사전》, 《국어학대사전》을 집필하던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일본어에 대한 생각을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일본어 연구 사전이 7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일본어학대사전》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국어학사전》이 일본어 연구 1세대의 생각을 투영한 것이었다면 《국어학대사전》은 2세대이며 《일본어학대사전》은 이 사전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긴 노무라 교수의 말처럼 3세대의 사전인 것이다. 그는 이 사전 말미에 실은 글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⁸ 다소 길지만 일본어 연구의 약 70년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사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별로 숫자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¹⁷ <https://ndlonline.ndl.go.jp/#/>

¹⁸ 노무라 마사아키(2018), 「삼대에 걸친 인연(三世の縁)」, 《일본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 ① 1958년 대학생이 된 나는 대학 도서관에서 3년 전에 나온 《국어학사전》을 만났다. 아직 국어학과 국문학의 구분도 잘 몰랐던 나에게 국어학이라는 연구 세계를 알게 하는 데 대단한 역할을 했다.
- ② 1980년 발간된 《국어학대사전》을 근무하던 국립국어연구소 연구실에서 보게 되었다. 판형도 크게 인쇄된 개정판은 국어학이라는 학문이 보다 확장 되었음을 실감케 하는 것이었다.
- ③ 2004년 학회 명칭 개정이 실현되었다. (중략) 이것이 단지 이름 변경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기의 연구 활동을 돕는 사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학회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대사전의 개정과 개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이러한 생각은 학회 회원들의 찬성을 얻어 2008년 편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④ 학회 스스로 ‘일본어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 항목에 대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언어 연구의 출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초반 일본에서는 ‘국학(国学)’이라는 학문이 태동한다. 당시 일본은 쇄국 상황에서도 나가사키(長崎)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서구 학문을 접하고 있었다. 서구 학문과의 접촉을 통해 다른 세상을 접하고 놀란 일본은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문의 길을 모색한다. 당시 동양 학문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중국, 중국어에 대해 외국, 외국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일본의 사상을 탐구하기 위해 그동안 잊혀진 《고사기(古事記)》나 《겐지 이야기(源氏物語)》와 같은 과거 문헌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18세기 당시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를 읽기 위해 출발한 것이 일본 문법 연구의 시작이었다. 즉 고전을 읽기 위한 방법 모색이 일본어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¹⁹

당시 중국과 일본은 조선과는 달리 바다로 격리된 덕분에 시차를 두고 전

해지는 한자의 운용과 발음이 화석처럼 일본어에 축적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사라진 한자의 발음과 의미마저도 일본어에는 남아 있었기에 당시 학자들은 시대만 특정하면 중국인보다 더 한문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중국뿐 아니라 당시 조선에 대한 열시로 이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고전을 읽기 위한 문법 연구로부터 시작된 ‘국학’ 나아가 ‘국어학’은 문헌 강독을 위한 보조 학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1980년대 까지 일본 주요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의 언어 연구는 옛날 문헌을 읽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게 된다.²⁰

②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서구 언어학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일본어 연구자가 늘어나고 일본어를 연구하려는 유학생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경제 발전에 의해 일본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대학에서는 일본어 교육, 나아가 일본어학이라는 분야가 각광받게 된다. 소위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생은 일본어 교사나 일본어학 전공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정보 혁명은 그동안 ‘국어학’ 연구의 근본을 뒤흔들었고 말뭉치(코퍼스)가 언어 연구에 있어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학제 간 연구’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컴퓨터의 발달로 고어 입력, 한자 변환, 외국어 입력 등 그동안의 언어 연구의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 유니코드에 의해 거의 모든 언어 입력이 가능해졌고 언어 연구 환경은 바뀌었다. 결국 아날로그 시대인 1980년대에 발행된 《국어학대사전》은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했다.

③ 2004년 ‘국어학회’에서 ‘일본어학회’로의 개칭은 ②에서 기술한 시대의

19 이 부분에 대해 한국어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문헌으로는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지음, 임성모 옮김(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35~48쪽 참조.

20 필자가 유학한 1987년 당시 지도 교수로부터 처음으로 지정을 받은 수강 과목이 문헌 강독이라는 수업이었다. 초서체로 쓰인 문헌을 하나하나 현대 일본어 문자로 옮기고 거기에 나타난 문법 형태와 내용을 통해 어느 시대 어느 작품인지를 맞히는 수업이었다. 문학 전공은 시대별로 산문과 운문으로 세분화되어 여러 교수가 있었지만 ‘국어학’ 전공은 학과 교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일본의 다른 주요 대학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언어 연구를 반영한 사전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말뭉치 언어학이 각광받게 되며 다양한 말뭉치가 구축되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말뭉치 기반 한국어 사전이 나오게 된다. 영어는 물론 한국어, 일본어 등 세계 각 언어의 말뭉치가 만들어지면서 다국어 번역기가 나오게 된다. 이제 언어 연구는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재 정보화에 의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사전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말뭉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비약적으로 쉬워졌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며 언어 관찰자로서의 모어 화자의 내성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반면 언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자기 개혁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어 연구를 ‘국어학’이라는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이미 편협한 생각이 되었고 이에 대해 학회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했다는 내용이다.

④는 ‘일본어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국어학’과 ‘일본어학’이라는 명칭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이제 언어의 차이를 떠나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제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할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을 언급한 것이다. 언어 연구도 이제는 기존 연구를 지배하던 ‘국민 국가’를 위한 사상이 아닌 과학으로서 연구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언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연구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러 동기가 겹쳐 내용적으로도 언어 과학이라는 말이 연상될 정도로 이전의 사전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목들이 이 사전에서 대폭 등장한다. ‘애매함 회피(prominence)’, ‘담화 분석’, ‘말뭉치’, ‘다언어 사회’, ‘인지 언어학’, ‘제2 언어 습득’, ‘문식성(literacy)’ 등이다.²¹

3. 《일본어학대사전》에 보이는 시각의 변화

이 사전은 전체 내용을 19개의 장으로 크게 나누고 각 장을 대항목으로 하고 이를 세분화한 중항목을 표제어로 하고 있다. 소항목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중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예시에서 [일본의 언어 정책]이 대항목이 되며 ‘상용한자표’가 중항목이다. 중항목 아래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소항목으로 각 시대에 만들어진 상용 한자표에 대해 중항목인 ‘상용한자표’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²²

A 총기·언어·언어정책

[일본의 언어정책]

[한자]

상용한자표……………525

←상용한자표(1923)

←상용한자표(1981)

←상용한자표(2010)

표외한자자체표……………77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어’를 예로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세 사전의 기술을 비교해 보자. 《국어학사전》을 제외한 이후 두 사전에 대해서는 이 단어에 대한 기술 분량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출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²¹ 다나카 마키로(田中牧郎)(2018)의 앞 글 참조.

²² 日本語学会編(2018), 《日本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22쪽.

《국어학사전》 ((언어)) (1) 한 국가의 중추를 이루는 민족의 언어. 국가 어라고도 함. (중략) (2) 일본어와 동일어. (중략) (3) 「국어」라는 것은 (1), (2) 이외에 한자어나 외래어에 대해 고유어(和語)를 나타내는 별칭, 「방언」에 대해 표준어·공통어의 별칭으로도 사용되며 나아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과 목의 하나인 「국어과」의 별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긴다이치 하루히코]²³

《국어학대사전》 【협어의 국어】 일본어의 관용에 의하면 일본어를 고쿠고(國語)라고 한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하는 국가의 언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서 논리를 넘어선 이 관용을 일본인은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인의 심리로써 여기에는 국어 즉 일본어라는 대치가 일어나고 있다.

【광의의 국어】 광의의 보편 개념으로서의 국어라는 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 성립의 전제로서의 사용을 해당 국민에게 보증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언어를 지칭한다. [가메이 타카시(亀井孝)]²⁴

《일본어학대사전》 【정의】 나라의 말.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양한 의미】 국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니시 아마네(西周) 《백학연환(白學連環)》(1870)에서 language의 번역어로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시기에 한자어로 번역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이 통일된 국민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해 가는 메이지 후기에 걸쳐 「방어(邦語)」, 「일본어」, 「일본 국어」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나라의 말」이라고 했을 때 「나라」를 지칭하는 범위, 그 형태 등, 그리고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함의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고대로부터 일본 열도에서만 사용되어 온 말(즉 한자어를 배제한 고유 일본어)라고 할 수도 있으며 향토에서 사용하는 말을 지칭할 수도 있다. 「나라」와 「말」의 정의를 애매하게 놔둔 채로 지냈기 때문인지 「국어(國語)」라고 표기하고 「고쿠고」라

23 국어학회 편(1955), 《국어학사전》, 동경당, 382쪽. 그의 일본어의 특징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책으로는 1957년 《일본어(日本語)》, 이와나미서점(岩波新書), 1988년 신판을 참조.

24 국어학회 편(1980), 《국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371~372쪽.

고 읽게 하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었다. (중략) 가메이 타카시는 《국어학대사전》(1980)의 「국어」라는 항목에서 국어를 광의와 협의로 구별하고 있다. (중략) 광의든 협의든 기본에 존재하는 것은 국어라는 말은 「나라」를 근대 국민 국가, 「말」을 이의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한 변용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²⁵

위의 인용을 통해 ‘국어’라는 항목에 대한 시대의 변화와 서로 다른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연구 분야와 배경이 다르다는 것도 이러한 기술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긴다치 하루히코는 도쿄대학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도쿄대학 교수였다. 그는 여러 대학 교수를 역임했지만 주로 방송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필 활동을 한 인물이다.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하와이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으나 그가 1957년 집필하여 135만 부가 팔린 문고판 『일본어(日本語)』(상·하)에서 발견되는 일본어의 특징을 보면 조사나 경어가 발달했다는 것이 일본어의 특징이라고 기술하는 등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인식 부족이 보인다. 개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외국어, 나아가 일본어라는 언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가 이 책을 통해 드러난다.

가메이 타카시(亀井孝)는 ‘국어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배타적인 의미를 지적하며 ‘일본어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1960년대부터 주장한 언어학자이다. 그는 당시의 ‘국어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⁶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기 학문의 불모지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 계획 지도를 그리며 학문 영역의 구획을 그으려고 했을 때로 대학의 제도라는 틀을 두고 당시로

²⁵ 일본어학회 편(2018), 《일본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379~381쪽.

²⁶ 가메이 타카시(亀井孝)(1966), 《언어사 연구 입문 일본어의 역사=별권(言語史研究入門 日本語の歴史=別巻)》, 평범사(平凡社), 3~4쪽.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은 고마쯔 히데오(こまつ ひでお)(1972), 「서평 가메이 타카시 씀(書評 亀井孝 著) 『일본어학을 위해서(日本語学のために)』, 《国語学》, 第88集, 国語学会, 121~128쪽 참조.

서는 이것이야말로 학문의 실질적 분류라는 의미에서 소위 국어학과 언어학을 서로 다른 아궁이를 가진 집으로 따로 지었다. 이리하여 언어학과 대등한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는 국어학이 때로는 언어학을 불신에 찬 시선으로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언어학에 대해 트집을 잡는 국어학자가 오히려 언어학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오는 대담함에 의해 아직도 19세기의 낡은 언어학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 언어학을 비판하는 예를 볼 때 이것도 또한 제도상에 있어서의 언어학과 국어학의 분할이 가져다 준 희극이라고 통감하게 된다.

그는 이 글을 쓸 때보다 훨씬 먼저인 193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조명을 받으며 ‘국어학’이 ‘일본어학’으로 바뀌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1980년 《국어학대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이 나왔지만 ‘국어’라는 항목을 그가 집필한 것을 보면 기술 내용 자체는 무미건조한 것으로 느껴져도 당시 ‘국어학회’가 그에게 이 항목에 대한 집필을 의뢰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미 시대의 흐름과 ‘국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야스다 도시아키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그가 나온 도쿄 대학 교수이자, 《국어학사전》이 나올 당시 국어학회 대표 이사로 간행글을 쓴 도키에다 모토키의 학문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며 주목받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 후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가 되고 일본의 국어학, 일본어학에 존재하는 의식, 무의식의 전체주의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가한 저술을 정력적으로 쓰고 있는 인물이다.

위 세 명의 기술이 명확히 차이 나는 것은 개인의 학문적 성향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어 연구를 둘러싼 시대의 변화와 학문 세대의 교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집필자에게는 극히 제한된 분량과 항목밖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학회 발간 사전의 특징이지만 집필자를 선정하는 것은 학회 편집 위원회의 몫이기에 학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학회의 공통 인식이 사전에 반영된다. ‘국어’라는 항목 이외에도 이 사전에는 자칫 개인 연구자의 과도한 주장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술한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한자’나 ‘문자’와 관련되는 ‘문자 언어’, ‘서기 언어(書記言語)’에 관한 부분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독자가 함께 읽을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어학회 회원은 물론 일본어 연구자들이 공유할 연구 정보와 가치를 담은 이러한 사전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국어학’에서 ‘일본어학’으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학문적 객관성과 이론의 중립성, 개방성이라는 측면을 이 사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나가며

일본어학회에서 발간한 세 종류의 사전은 지난 70여 년간 일본의 언어 연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연구 환경 변화는 다른 분야 학문과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정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연구에 있어서도 개별 연구 분야의 심화가 다른 연구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의해 촉진되었다. 언어 연구, 나아가 이를 담는 사전은 이러한 연구 분야의 빠른 변화를 수록하기에는 그 속성상 한계가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는 사전이 갖는 규범성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학사전》에서 《일본어학대사전》으로의 기술 항목과 내용의 변화는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회 회원이 공동으로 집필하는 사전은 학회 회원 모두의 공통 인식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개인 집필 저작물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자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 있는 전문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른 전문가를 통

해 때로는 수정해야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하며 약 10년에 걸친 편찬을 통해 간행된 《일본어학대사전》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본어 연구의 초석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에 의한 정보 발신이 활발한 시대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영역이 세분화, 전문화되어 자칫 연관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못 느끼게 될 위험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단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를 상징하는 종이 사전 편찬이 갖는 유용성을 《일본어학대사전》에 대한 글을 쓰며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사전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해석할 부분이 많다. ‘국어’는 물론 ‘국어 생활’, ‘표준어’, ‘한자’, 서기 언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가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지음, 임성모 옮김(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 노무라 마사야키 지음, 송영빈 옮김(2004),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 북스.
- 龜井孝(1966), 《言語史研究入門 日本語の歴史=別巻》, 平凡社.
- 龜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他編(1988~2001), 《言語学大辞典(第1卷~第7卷)》, 三省堂. (<https://joao-roiz.jp/SLE/>)
- 金田一春彦(1957), 《日本語》, 岩波書店.
- 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 国語学会編(1955), 《国語学辞典》, 東京堂.
- 国語学会編(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 こまつ ひでお(1972), 「書評 龜井孝著『日本語学のために』」, 《国語学》, 第88集, 国語学会, 121~128쪽.
- 佐藤喜代治編(1977), 《国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 田中春美編(1988), 《現代言語学辞典》, 成美堂.
- 田中牧郎(2018), 「新刊クローズアップ『日本語学大辞典』」, 《日本語学》, 通巻487号(第37卷13号), 明治書院.
- 月本雅幸(2018), 「刊行の経緯」, 《日本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 時枝誠記(1941), 《国語学原論 言語過程説の成立とその展開》, 岩波書店.
- 日本語学会編(2018), 《日本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 野村雅昭(2018), 「三世の縁」, 《日本語學大辭典》, 東京堂出版.
- 安井稔編(1971), 《新言語学辞典》, 研究社出版.
- 安田敏朗(1998), 《植民地のなかの『国語学』》, 三元社.

참고 누리집

- 일본어학회(<https://www.jpling.gr.jp/kaiin/osirase/osirase2000-2003.html#forum>)
- 일본 국회도서관(<https://ndlonline.ndl.go.jp/#/>)
- 일본 국립국어연구소(https://db3.ninjal.ac.jp/publication_db/)